

연세대학교 삼애 캠퍼스와 삼애교회의 가치

정미현 (연세대학교, 교수, 조직신학)

【국문초록】

이 논문은 연세대학교 삼애캠퍼스와 삼애교회의 가치와 의미를 재고찰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세겹줄 사랑의 의미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재해석되어야만 한다. 삼애교회가 삼애정신을 오늘날에 접목할 수 있는 특성을 요약 하면 첫째로 삼애교회는 하나님 사랑을 예배로 실현하는 신앙공동체이다. 평신도 리더십이 돋보이는 민주적 협의체로서의 교회위원회를 통해 구성원 들은 민주와 협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되며, 하나님 사랑을 일상적으로 사회에서 구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둘째로 농촌사랑의 의미는 농촌이라는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 의미에서 주변화된 이들에 대한 돌봄과 생명문화 확산으로 포괄적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셋째로 삼애 정신이 지향하는 노동사랑은 여러가지 차원으로 확대 재생산 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삼애교회 공동체는 삼애 나눔농장을 통하여서 땀 흘리는 노동과 나눔의 가치를 몸으로 새기고 있으며, 도시인이 잃어버린 자연에 대한 리듬을 회복하고 생태 친화적 교회운동에 동참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삼애 캠퍼스에 위치한 삼애교회는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향한 대표적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하나님, 인간과 자연과의 화해의 장으로서 지속성있게 성장할 책임을 지닌다.

주제어: 삼애교회, 삼애 캠퍼스, 지속가능성, 자연, 노동, 쉼, 사랑

I. 들어가는 말

연세대학교 삼애캠퍼스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160-30 고봉산¹⁾ 기슭에 위치한 기증자 배민수(1896-1968)²⁾ 목사와 최순옥(1902-1986)³⁾ 여사(이하 존칭 생략)의 땀과 헌신이 깃들여 있는 역사적 장소이다. 삼애캠퍼스 중심부에는 이 분들의 분명한 기증 조건과 뜻에 따라서 2006년 9월 17일 설립된 초교파 교회인 삼애교회가 자리하고 있다.⁴⁾ 연세대학교 규정집에 나타난 삼애교회의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삼

- 1) 경기도 고양시는 삼국시대 정치적 긴장이 교차하던 시기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간직하고 있는 땅이다. 삼애 캠퍼스에 잇닿아 있는 고양시 고봉산 이름의 유래가 된 이 이야기는 조선판 준향전과 비슷하다. 고구려인과 백제인 사이의 유명한 사랑 이야기이다. 고구려 22대 안장왕이 태자 홍안으로 지내던 시절, 백제에게 빼앗겼던 한강 지역의 고구려 땅을 되찾고자 몰래 이곳에 태자의 신분으로 파견되었다가 백제 땅의 한주(한씨 미녀)라는 아가씨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 이후 홍안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그 사이 백제 태수의 청혼을 마다한 죄로 한주는 옥에 갇히게 된다. 올밀이라는 고구려 제일의 장수의 활약으로 풀려난 한주는 홍안 태자를 빨리 만나고 싶어 고봉산에 올라가 봉화를 밝혀 자신이 구출되었음을 알리게 되었다. 이렇게 한씨 미녀가 봉화를 울려 고구려의 왕을 맞았다는 데에서 고봉산의 이름이 유래한다. 이곳은 백제와 고구려를 지역적으로 이어주는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한강을 끼고 발달한 봉수체계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다. 삼국사기 지리지 37권에서는 한씨 미녀가 안장왕을 맞이한 땅이므로, 왕을 만난 땅, 왕봉현(지금의 고양시 신평동)이라 이름 지었음을 밝히고 있다. 김용만, 『인물로 보는 고구려사』(서울: 창해, 2001), 250-254; 김부식/신호열 역해, 『삼국사기』(서울: 동서문화사, 2007), 653.
- 2) 배민수의 삶과 사상에 대한 선행연구는 이미 다양하게 소개 되었다. 가장 최근의 것으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최재건, “배민수의 삶과 사상, 그의 유지 계승,” 『대학과 선교』 39(2019), 155-190.
- 3) 정석환은 최순옥에 대한 일생을 상담심리학적 관점에서 밝혀주는 논문을 썼고, 이 논문은 그녀의 삶을 조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이다. 이 논문은 기증자의 기증 조건 이행의 책임이 연세대학교에 있음은 물론, 건전한 기부 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마무리되었다. 정석환, “최순옥 여사의 생애와 사상,” 『한국 기독교 상담학회지』 22(2011), 295-341.
- 4) 삼애교회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연세대학교 삼애교회 10년사. 2006-2016』(서울: 연세대학교 삼애교회, 2016); 배민수 목사 기념실은 삼애 교회 건물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방문한다. 특별히 인근 지역, 유치원, 초중고생의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된다. 교회 건물 뒷편으로는 배민수, 최순옥과 그 분들의 어머니의

애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삼애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사랑, 노동사랑, 농촌사랑의 삼애정신을 기반으로, 소속 교우들의 신앙 성장과 지역사회 선교를 돕고, 예배, 선교, 교육, 봉사, 교제의 교회 본연의 사명을 구현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⁵⁾

초교파라는 것이 또 하나의 교파로 인식되는 경향이 다분히 강한 한국 사회에서 그 의미를 온전히 실현하는 개신교 교회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삼애교회는 연세대학교의 건학 이념과 삼애 정신에 따라서 초교파 연합교회로써 운영되고 있으며, 교단간의 연합체로써의 기능을 갖고 진정한 의미에서 에큐메니즘을 실현하는 교회로써 자리매김 되어 있다. 삼애교회의 설립과정에 대해서는 한 선행 연구에 잘 담겨져 있다고 본다.⁶⁾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이 지향하는 것은 삼애정신을 21세기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그 가치를 다시금 되새겨 보고 재해석하고자 하는 것이며, 배민수와 최순옥이 남긴 삼애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삼애캠퍼스와 삼애교회의 역사적 공간으로써의 장소성과 그 현대적 의미를 조명하고자 한다.

요소가 마련되어 있다.

5) <https://rules.yonsei.ac.kr> (2019. 7. 19. 접속)

6) 삼애 캠퍼스의 기증자 배민수에 대한 선행 연구는 지금까지 많이 있었다. 본 논문은 배민수에 대한 연구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선행연구는 지면상 다루지 않겠다. 삼애교회 자체에 대해 다룬 논문은 다음의 것이 유일하다. 정종훈, “연세대학교 삼애교회의 현황과 비전, 그리고 삼애정신의 구현,” 『신학논단』 66(2011), 109-124.

II. 몸말

1. 하나님 사랑을 담아내는 민주적 신앙 공동체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에 소속했던 배민수는 서울의 성도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시무한 적이 있었다.⁷⁾ 이 교회는 본래 1947년 6월 21일 서울 광화문에 있었던 피어선 성경학교에서 이인식, 김양선, 선우훈, 김영서를 비롯하여 교인 60여 명이 배민수를 모시고 창립하였고 월남한 실향민들을 위한 영적 쉼터가 되어 주었다. 이후 배민수는 1953년 11월 공로목사로 추대되었다. 성도교회는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가 181-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수도노회에 소속되어 있다.⁸⁾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시작했던 한국의 장로교회는 1950년대 성서해석의 차이, 이념갈등 등으로 교파분열이 가속화되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통합과 합동으로의 분열이 모두 이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배민수는 자신이 속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의 교단주의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향한 신학적 성향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이런 기부자의 유지와 다양성 속의 연합과 일치 가운데 설립된 연세대학교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삼애교회가 탄생한 것이었다. 최순옥은 이 땅을 1976년 연세대학교에 기증할 때 6가지 항목의 기증 조건을 제시하였고, 당시 연세대학교 총장 이우주와 재단 이사장 이천환은 1976년 8월 12일 이러한 기증 조건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이 땅을 수증하였다. 그 기증 조건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지향하는 에큐메니칼 정신의 실천을 목표로 삼애교회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7) 최재건, “배민수 목사의 미국에서의 활동,” 『신학논단』 51(2008), 126.

8) <http://www.seongdo.org> (2019.7.17. 방문)

이러한 유지를 받들어 연세대학교는 그 직제규정에 따라 총장의 재가를 얻고 교목실장의 위임을 받아 연세대학교의 전임 교목 가운데 한 명을 삼애교회 담임목사로 파송하여 섬기게 한다. 담임목사의 임기는 교목실장의 보직 임기 2년을 따르게 되어있고, 연임할 수 있다.⁹⁾ 연세대학교 교목실은 설립 정신에 따라 교파 연합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양한 교단의 교목들로 구성된 교목실 운영위원회는 삼애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써 교회 치리와 경영을 위한 최종적 책임과 권한을 지니고 있으며 운영 위원장은 교목실장이다.

담임목사가 이처럼 평균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바뀌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산만해 질 수 있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책임감 있는 교회 구성원들을 통한 연속성 유지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 삼애교회 공동체는 진정으로 삼애 캠퍼스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직접 재능 기부하여 배민수 목사의 일대기를 기념 뮤직 드라마로 만들어내는 등 그 정신이 확산 되도록 하고 있다.¹⁰⁾

9) 삼애교회 규정 5조 2항, <https://rules.yonsei.ac.kr> (2019.7.17. 방문) 연세대학교 업무분장규정 제44조는 삼애교회를 부속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제규정 제15조 제2항은 부속기관에는 기관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제규정 제15조 제2항 제2호부터 제24호까지는 기관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즉 그 기관을 관장하는 책임자를 기관장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직제규정 제15조 제2항 제25호 나.목은 삼애교회는 교목실장이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론은 삼애교회는 부속기관에 속한다. 삼애교회의 기관장은 교목실장이 겸직하고 있다. 따라서 삼애교회 담임목사는 기관장이 아닌 것이다. 또한 보충규정에 따르면 삼애교회 규정 제3조 제2항은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교목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교목실장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담임목사는 당연직 위원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은 ‘직제규정’과 ‘교회관련규정’은 같은 맥락에서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대학교회와 마찬가지로 삼애교회의 최고책임자인 운영위원장(기관장)은 모두 교목실장이다. 따라서 삼애교회 담임목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삼애교회를 대표하는 운영위원장(기관장)은 아니다.

10) 이 뮤직 드라마 ‘일산 예배당 이야기’는 김홍열 교수가 기획하고 극본을 썼고, 나인용 교수가 곡을 붙여 완성했으며, 삼애교회에서는 매년 배민수 목사 추모 예배시에 이 공연

기독교 대학의 교목실 교목을 중심으로 담임을 임기제로 맡는 이러한 방법과 구조의 한계는 오히려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평신도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 때문에 삼애교회는 하나님 사랑을 지향하는 평신도 중심의 신앙 공동체로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게 하였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국 개신교회의 큰 약점 가운데 하나인 당회장 중심주의의 병폐를 시정 할 수 있는 교회의 모델이 된다는 것이다. 장로로 대표되는 당회가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로 구성된 대표들에 의한 교회위원회 체제는 보편적인 교회의 경영과 치리에서 보여지는 중앙집권적 권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인 협의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¹¹⁾ 여기서 결의된 내용 가운데 전임 사역자에 대한 인사나 정책과 같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사안은 교목실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최종적 승인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협치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어느 한 사람의 의견에 다수가 일방적으로 지배되는 것을 방지한다. 일반 개교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목사의 임기제가 도입된다면 당회장 독점 구조가¹²⁾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듯하다. 이러한 의결구조는 투명성, 공정성과 민주적 협의체를 지향하는 현대인의 문화에도 더 적합해 보이며, 이를 통해 정체된 개신교의 구조적 문제성을 바꾸는 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겠다.

임명직과 선출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위원의 임기는 대개 2년이다. 또한 발언권 뿐만 아니라 의사 결정권을 동등하게 갖는 교회위원회에서는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능력과 관심에 따라 성차별이 없는 제자적

을 하고 그 뜻을 기린다. 『연세대학교 삼애교회 10년사. 2006-2016』 (서울: 연세대학교 삼애교회, 2016), 145-162.

11) 정중훈, “연세대학교 삼애교회의 현황과 비전, 그리고 삼애정신의 구현,” 114-115.

12) 지금까지는 교회를 개척한 설립자 중심, 혹은 그 직계 중심의 당회 구조였다면, 한국 개신교도 이제는 그러한 모델을 탈피하여 교회의 지속성 있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목사 청빙을 포함하여 인재를 다양하게 등용해야 할 시기이다.

수행이 실현되고 있다. 한국 개신교의 의사 결정권은 대부분 장로로 구성된 당회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당회에서 여성들은 보편적으로 여전히 배제되거나 혹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여성 대표성은 인정되지 않는 데 비해, 삼애교회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여전히 교회에서 여성들은 가사 노동의 연장선상에서의 일이나 봉사에 집중해 있는 반면, 의결 구조 안에서 여성들이 동등자 제자직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데, 삼애교회는 이 한계를 극복한 것이다.

평신도 리더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교회들에서는 구호만으로 보편화되어 있고 진정성 있게 그 내용을 채우고 있지 못하다. 그것은 여전히 성별 역할 분담의 차원에서만 사용되거나, 여성들은 의결권을 갖는 구조에서 배제된 채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데에 사용되는 것이 아직까지도 오늘날 한국 개신교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평신도 리더십은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위에서 아래로(top-down) 방식만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bottom-up)의 접근도 가능하고, 양방향의 소통에 도움을 주도록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때문에 평신도 리더십은 의무만이 아니라 권리의 차원에서도 성찰되어야 한다.

삼애교회에 등록된 모든 교우들은 각각의 관심과 재능에 따라서 분과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분과 위원회는 예배/음악, 교육, 봉사, 선교, 친교, 재정, 관리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삼애교회는 내규에 따라 교우 연차회의를 두어 재정과 교회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만 19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구성된 교우 연차회의는 연 1회의 정기 교우 연차회의와 담임목사 혹은 회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되는 임시 교우 연차회의로 구분되어 있다.

교회력에 따른 성서 정과에 따라 설교 말씀을 묵상하고, 매 주일마다 예배에서 성찬식이 거행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예전

적인 예배를 추구하는 삼애교회는 독점이 아니라 나누어지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고 북돋우어 주는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교회 운영의 차원에서도 모범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론적인 평신도 리더십이 아니라, 평신도 모두의 역할이 능동적이며 효율적으로 작용하는 공동체(Gemeinschaft)이다. 이와같이 민주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삼애교회의 실험적 모델은 한국 교회에 확산 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한다고 보겠다.

회색의 콘크리트로 뒤덮인 도시 안에서 삼애 캠퍼스는 자연 안에 근접해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녹색의 힘(viriditas)을 통한 치유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새로운 한 주간을 효율적으로 준비하게 한다. 삼애교회의 일요일의 예배는 그 자체의 목적으로만 존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삼애교회 공간 안에서는 한국의 일반 교회처럼 주중에 여러 번의 예배가 진행되지 않는다. 오히려 주중의 일상성 안에서 삶터와 일터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무대(Theatrum gloria Dei)”가 되도록 돕는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아울러 소비와 욕망에 젖어있는 현대인들에게 파라오의 착취에 저항하며 하나님을 향한 관계성과 본질적인 것을 회복하게 했던 안식일의 규정을 상기하게 하며¹³⁾ “숨과 쉼”을 회복하게 한다.

배민수의 표현대로 하나님 나라 시민의 “궁극적 목적은 물질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¹⁴⁾에 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임하셨으나, 아직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 소망은 이 땅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삼애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구심력이

13) 월터 브루그만/박규태 옮김, 『안식일은 저항이다』, 삼애기념사업위원회편, (서울: 복있는 사람, 2015), 31.

14) 배민수, 『그 나라와 한국농촌』,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71.

다. 삼애교회가 위치한 그 땅이 하나님 사랑을 일요일 예배에만 담아내는 공간이 아니라 일상적인 예배로 이어지는 신앙인의 훈련의 자리이자, 삼애 정신의 역사성을 담고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2. 농촌사랑의 현재적 의미

서울 중심의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지역적으로 주변으로 분류되는 곳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우리나라 개신교의 가장 큰 비중을 지닌 장로교의 토대를 마련했고 서울뿐 아니라 전국 단위로 선교활동을 벌였던 호래스 그랜트 언더우드의 보고에 의하면 경기도 서북의 고양지역은 선교하기가 그리 쉬운 곳은 아니었다고 한다.¹⁵⁾ 이 지역에 복음전파를 위한 꿈은 언더우드 뿐 아니라 여러 선교사들도 지니고 있었으나, 그 비전은 배민수에 의하여 구체화되어갔다.¹⁶⁾

배민수와 최순옥은 일찍이 주변화 된 곳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1967년 12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재단법인 삼애 농업기술학원을 세우고 1968년 3월 15일 개강식을 가졌다. 이곳에서 학생들이 농업 기술을 배우고 실습하여 농촌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었다.¹⁷⁾ 기초적인 이론 수업이외에도 낙농과 원예를 중심으로 한 실습이 바로 이 삼애 캠퍼스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언더우드 부부와 여러 선교사들의 헌신을 바탕으로 1915년 설립된 조선 기독교 학교(현 연세대학교)는 1917년 농학과를 개설하여 전문 인

15) 호래스 그랜트 언더우드,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이만열, 옥성득 편역, “언더우드 보고서 1915년,” 『언더우드 자료집 V권』(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0), 213.

16) 왜 그가 고양시 일산에 관심을 두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홍열, “일산 예배당 이야기,” 『연세대학교 삼애교회 10년사. 2006-2016』(서울: 연세대학교 삼애교회, 2016), 146-149.

17) 방기중, 『배민수의 농촌운동과 기독교 사상』(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9), 275.

력을 양성하였다. 그러나 1921년 1회 졸업생 3명 배출한 후 더 이상 학생충원을 하지 못했다. 이후 농업 교육을 부흥시키고자 했던 백낙준 총장의 노력으로 1967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한국 농업에 기여할 수 있는 일군을 양성하기 위해 낙농을 위주로 하는 단기 교육기관으로써 연세대학교 농업개발원이 설립되었다.¹⁸⁾ 1967년 3월 1일에 발효된 연세대학교 부설 농업개발원 제1조에서 밝히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원은 기독교 정신으로 땅을 사랑하며 우리나라 식생활 향상을 통한 생활개선과 농촌 문화 개발을 위한 농업경영의 이론과 실사를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 교수하여 이에 대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¹⁹⁾

한국 개신교 선교는 일찍이 농촌 선교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농업개발원에서는 농촌 지도자를 양성하여 기독교의 정신의 확산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연희전문학교의 한 교육목표를 구체적으로 이어가며 실현하기 위한 결의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배민수는 숭실대학교 이사장을 지냈음에도 그 땅을 낙/농업에 대한 기초가 이미 갖추어졌고 기독교의 정신으로 교육을 하던 연세대학교에 기증하여 삼애정신을 온전히 이어가기를 희망하였다. 실제로 배민수는 1968년 삼애 농업기술학원이²⁰⁾ 세워진 뒤 바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확히 표현하면 이 땅을 연세대학에 기부할 결단을 한 장본인은 최순옥이었다.²¹⁾

18) 연세대학교 농업개발원, 『연세대학교 농업개발원 25년사』 (서울: 연세대학교 농업개발원, 1991), 14-16.

19) 앞의 책, 17.

20) 삼애농업기술학원을 통해 배출된 졸업생은 현재 약 31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의 땀과 노력이 깃든 삼애 실습농장에서의 젖소 사육, 낙농경영과 기술개발은 이후 연희동 목장과 아울러 수익 사업체로써의 연세우유 발전에도 보탬이 되었다. 앞의 책, 136-139.

21) 최순옥을 도와 이 땅이 연세대학교에 기증되고, 교회와 기념관이 세워지도록 가장 노력

“삼애 동산은 내 손이 안 간 데가 없이 가꾸어진 생각하면 애처롭고 눈물 겨우게 서운하지만, 그러나 나 자신보다 신앙능력 기반이 튼튼하고 목적 사업이 동일한 후계자를 발견하여, 장차 이 목적사업을 지속하여 빈한한 우리 농촌을 부유케 하며 한국 농촌의 햇불이 되어질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되니, 섭섭한 심정보다 멀지 않은 장래의 눈부시는 번창을 바라보면 대견하고도 흐뭇한 심정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벗겨주셨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²²⁾

하나님 나라 신학에 주목하던 배민수는 왜 농촌을 중요시 하였는가? 지구상에서 가장 주변화된 곳으로써 그는 한국 농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의 왕국에 왜 한국 농촌문제를 관련시키느냐고 질문하는 이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예수께서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사마리아 등 농촌, 어촌, 산촌을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개하신 것과 같이 한국 농민이 전 세계 각국 농민 중 가장 빈곤하고 불운에 처해 있으므로, 왕국문제를 취급하는 데 가장 적합한 실험장이 되고...만일 한국 농민의 처지가 이렇게 곤란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노동 문제 혹은 미국의 원주민 문제나 미개한 민족들의 난제 등을 연구하고 직접 그들을 위하여 노력하였을 것이다.”²³⁾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배민수가 제시한 기독교적 사회운동은 이미 시카고 장로회 신학교에서 수학할 때부터 싹터 왔던 것이다.²⁴⁾ 그는 사

했던 이들은 유엔평화본부한반도유치위원회 총재인 정건모, 전 연세대 생물과 교수 신영오, 대한 예수교 장로회(통합) 총회 농어촌 선교부 전 총무 박노원등이다.

22) 최순옥, 1976년 9월 20일, Mildred and Arthur C. Prichard 에게 보낸 서신. 연세대학교 박물관 자료실(미간행). 이 편지는 기증자의 친필 원본 자료로써 6가지 형태의 기증 조건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23) 배민수, 『그 나라와 한국농촌』, 118.

24) 최재건, “배민수 목사의 미국에서의 활동,” 『신학논단』 51(2008), 117.

회학적 측면에서 농촌과 도시의 구조적 문제성을 분석하고 그 해법을 기독교적 시각에서 구체적이며 실천적으로 찾고자 했던 것이다. 농촌 활성화 운동은 기독교적 사회운동의 의미도 아울러 지니고 있었다. 일제가 토지 조사를 시작하던 1910년대부터 농민들은 70% 이상 소작농으로 전락해 노동의 대가를 스스로 즐길 수 없는 노동 소외 상황에 빠졌다. 일본 대자본과 한국의 친일 대지주와의 결합은 한국 농민의 노동력을 조직적으로 착취하여 갔다.²⁵⁾ 그래서 이들은 노동의 결실을 일본 제국주의와 그에 기생하여 살던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농촌은 급격한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배민수는 이와같은 사회경제적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파악한 뒤 농촌을 배경으로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기독교 사회운동에 참여한 것이었다.²⁶⁾

“우리는 농촌에 있는 흙을 사랑하고, 전답을 사랑하고, 산과 들과 모든 아름다운 경치를 사랑하고, 농촌의 기후풍토를 사랑하자. 그리고 졸졸 흐르는 시냇물과 맑은 샘물을 사랑하고, 나무와 풀과 꽃과 아름다운 새들을 사랑하고, 모든 가축을 사랑하고, 과수원과 정원과 가옥을 사랑하고, 어린 이들과 모든 사람을 사랑하자. 그리하면 사랑하는 대로 몇 십 배 상급이 나오는 것이다.”²⁷⁾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의 가치보다 자본증식의 가치가 확대되고 계층 간의 갈등과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다. 또 도시와 농촌 간 격차, 도시 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도시 빈민이 늘어나며, 농촌은 급속도로 노령화되고 한국 여성 이탈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이주 여성을 포함한 다문화 사회의 문제가 급증하

25) 서정민, “배민수의 ‘그 나라’와 신학적 사회운동,” 『신학논단』, 43(2006), 533-534.

26) 앞의 논문, 533.

27) 배민수, “한국 기독교 농촌운동의 의의,” 『그 나라와 한국 농촌』, 122.

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농촌 문제는 곧 도시 문제로 이어진다. 생명 문화의 확산이 시급하다. 도시와 농촌 사이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받고, 어떻게 농민의 노동과 수고에 감사하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어떻게 상생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하며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²⁸⁾ 이러한 배경에서 배민수의 노동사랑, 농촌사랑의 정신, 노동을 통한 농촌개혁의 의미는 재해석, 재적용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²⁹⁾

배민수의 맏아들 배영은 부모님의 삼애정신에 등장하는 농촌이라는 개념을 협의에서가 아니라 광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된다고 보았다. 그의 부모님은 “촌” 혹은 “농촌”이라는 개념에 함축된 농사와 연관된 좁은 개념을 넘어서서 가난하고 교육의 기회 없고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농촌운동을 통한 광범위한 사회개혁을 구상했던 것이다. 당시에 경제 사회적 상황 속에서 농촌은 우선적으로 그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궁극적인 의미는

“...‘농촌’은 국한된 지역이나 직업을 초월한 더 광범위한 개념을 가졌던 것입니다...국민들의 자유, 평등 및 인간으로서의 위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폭넓은 기독교적인 사명감을 통하여 굶주리고 목마르고 소외당하고 헐벗고 병들고 구속당한 모든 인간을 도와야 한다는 더 고상한 사명감으로 연장된 것”³⁰⁾이다.

28) 예를 들어 가톨릭에는 한 살림 운동과 같은 거시적인 생명지향의 소비자 운동이 잘 정착되어 있지만, 개신교 안에서는 도시와 농촌을 연결해 주는 개교회 중심, 교단 중심의 산발적인 모임들은 있으나 전국규모의 유기체적 연합 운동이 부족하다.

2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2693> (2019. 7. 19. 접속)

30) 배영, “농촌과 생명문화, 아버지의 초상,” Minsoo Pai/박노원 옮김, *Who Sha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배민수 자서전. 누가 그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9), 356-357.

이와같이 농촌에 대한 관심은 한 시대와 지역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궁극적 목표로써 주변화된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세이며 사랑과 돌봄의 윤리와 접목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도시와 농촌의 이원화된 구조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써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 사역에 잇대어 있는 유기체적 공동체임을 강조하여야 한다.

비록 한국 사회가 지금은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탈피해 있고, 반도체와 IT 위주로 발전되고 있으나 건강한 먹거리의 공급과 생명 문화 확산을 포함한 농업의 중요성을 자각하며 도농간의 유기체적 연결망을 효율적으로 활성화하고 개선할 여지가 많은 것이다.³¹⁾ 그런 점에서 농촌과 그 문제성을 과거의 문제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적 시점에서 바라보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배민수의 고민과 노력의 흔적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새롭게 접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생명 운동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시대에 인간은 자연을 지킨다는 청지기임을 자처하는 오만함도 내려놓고, 겸허히 자연으로부터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자연 없이는 못 살지만, 자연은 인간 없이 더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예술과 과학 기술이 자연 모방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도 우연은 아닌 것이다. 이제는 인간중심주의로부터 탈피하여 작은 것의 가치도 소중히 여기며, 인간으로부터 착취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자연, 곧 주변의 소리에 겸허히 귀 기울이며 생명 중심주의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³²⁾

배민수와 최순옥에 의해 그 주춧돌이 놓여지고 주변으로부터의 선교

31) 김준호, 『미래산업, 이제 농업이다. 후지쓰는 왜 반도체를 버리고 상추를 심었을까』 (서울: 가인지 캠퍼스, 2017).

32) 최병성, 『들꽃에게 귀 기울이는 시간. 자연이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3).

의 정신이 깃든 터전에 자리 잡은 삼애교회 공동체는 자연 위에 군림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인 자연으로부터 치유되는 혜택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공동체를 지향한다. 그리고 그 감사를 지구촌 주변부의 사람들과 나누는 행위로 표현한다. 구체적인 몇가지 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연세대학의 여러 전공영역에서 공부하는 탄자니아, 인도, 파키스탄, 카메룬등 지구 남반구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의하여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실항민으로 방황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하여 올리브 나무심기를 지원하는 일, 네팔 선교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내적으로는 탈북학생을 포함한 대학생 장학금 지원, 대학생 식권 지원사업을 통하여 학원선교에 보탬을 주는 일, 고양시 지역 주민들 가운데 독거노인 점심 지원, 고양시 한 부모 가정 청소년 지원, 기초 생활 수급대상인 인근 중학교 학생들 지원, 강원도 미자립 교회 지원, 소아암 환자 지원, 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관 운영 등도 모두 삼애 나눔 정신의 구체적 실현인 것이다.³³⁾ 선교비 지출 비율은 2018년도 기준 전체 예산의 약 6.99%였는데, 2019년도는 8.12%으로 증액되었으며 2020년에는 11.2%로 점진적으로 늘어갈 계획이다. 이와같은 재정 지원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자립구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 우선적으로 쓰이며, 여기에는 긴급 구호 형식의 일회성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삼애 교회 공동체는 승자독식의 경제적 착취구조 속에 길들여지거나 노예화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과 불의함에 저항할 수 있는 신앙적 근육을 키워나가고, 주변화 된 이들을 돕는 역할을 중시한다.

삼애정신에는 죽은 뒤의 개인의 영혼 구원만을 추구하는 것이나, 지

33) 교회 설립 초창기에 구상했던 이주 노동자 의료지원은 그동안의 구성원과 그 주변의 사회 환경적 변화(Sinus-Milieus)로 인하여 2020년 현재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상의 유토피아를 구축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늘에 소망을 두지만, 땅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기독교 공동체를 세워 나가자는 귀중한 뜻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그 뜻은 삼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육화된 신앙적 실천 운동으로 지속성있게 이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3. 노동사랑의 가치

삼애교회는 예수가 완성하고 요약적으로 설명하여 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말씀(눅 10: 26-27)을 자연 안에서 묵상하기에 최적화된 곳이다. 각각의 개교회는 그 나름대로의 목회 방향과 지역적 상황을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삼애교회는 특별히 세겟줄의 사랑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기증 조건을 갖고 세워졌기 때문에 그 정신을 이어갈 사명과 책임을 되새기고 있다.

배민수는 예수의 성육신 사건을 하나님의 뜻의 성취로 보았는데, 그 방법은 인간을 사랑함으로 완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역으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된다. 사람을 미워하면 곧 예수를 미워하는 것이니,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³⁴⁾ 배민수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가르치신 대로 사람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람을 사랑치 아니할 수 없고 보이는 사람을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도리를 순종 실천함이고, 그 도리와 진리의 중심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살 길이 열리는 것이다.”³⁵⁾

34) 앞의 책, 15.

일찍이 배민수는 사농공상의 육체노동을 경시하는 풍조와 계급별 노동의 차별화가 우리 문화와 전통에서 오랫동안 부정적 영향을 끼쳤음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땀 흘리는 노동의 가치를 중시했다. 그 점에서 노동 사랑을 강조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못살게 된 것은, 우리가 예로부터 노동을 미워하고 무서워하고 천대한 까닭이다. 우리 선조들이 글에만 열중하여 신체적으로 연약하게 되어 방 안에 앉아 큰 소리치고 호령하며, 남을 부러먹는 소위 양반 노릇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노동과 노동자를 천대”³⁵⁾ 하였던 풍조에서 비롯되었음을 배민수는 비평적으로 성찰하였다. 이러한 폐습과 아울러 배민수는 “노동자는 놀고먹는 자를 부러워하고, 놀고먹는 자들은 노동자를 하대하며 큰소리치고, 부러먹고 먹히는 것으로 우월감과 자포자기하는 악습”³⁷⁾의 노동구조의 문제성을 역설하였다.

덴마크 협동조합운동의 개척자 그룬트비의³⁸⁾ 모델을 벤치 마킹했던 배민수는 도시와 농촌의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하며, 기초 생활 수급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제시할 정도로 보편적 복지와 생산증대와 분배정의가 조화를 이룬 상호부조의 방법을 제시하였다.³⁹⁾ 그가 식산계 운동을 장려한 것도 농민 스스로 자립하여 경제 부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다.⁴⁰⁾ 그는 “전체가 하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35) 배민수, 『그 나라와 한국농촌』, 121.

36) 배민수, 앞의 책, 122.

37) 배민수, 앞의 책, 123.

38) 방기중, 『배민수의 농촌운동과 기독교 사상』, 271.

39) 배민수, 『그 나라와 한국농촌』, 93; 덴마크는 오늘날 복지국가의 롤 모델로 여겨진다. 두 나라에서 기독교의 역사는 매우 다르다. 더욱이 루터교를 기반으로한 덴마크와 개신교 중 69% 이상의 장로교를 기반으로 한 한국을 단순비교할 수는 없었다. 덴마크의 협동조합 운동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반면 우리는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은 것을 부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덴마크를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생각하는 것에 대한 허상을 깨는 책으로는 다음을 참조: 에밀 라우센, 이세아, 『상상 속의 덴마크』 (서울: 틈새책방, 2018).

하나가 전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One for all and all for one) 민주주의와 서로 돕는 협동생활⁴¹⁾의 모델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었다. 그것은 서로의 수고와 노동에 감사하며, 그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인정할 때 가능하다.

인간의 노동과 안식은 하나님의 노동과 안식에 근거한다. 인간의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적 근원에 잇대어있던 창의적이며 생산적인 일이었다고, 노동과 쉼의 리듬을 간직한 것이었다. 이처럼 태초에 인간의 노동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 받은 고귀한 존재로서의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생산적이고 가치 있는 일이었다.⁴²⁾ 하나님의 사역인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노동의 기쁨과 열매였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었다. 그러나 에덴 이후의 노동은 달라졌다. 인간의 타락으로 노동의 타락 현상이 생겨났으며 노동은 고통스러운 작업이 된 것이다. 타락 이후 인간의 노동은 최악의 결과로써 인간에게 부과된 형벌의 한 형태로 자리매김 되었고, 노동의 주체인 그 자신으로부터 소외되게 되었다.⁴³⁾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살리고 그 안에서 즐거움과 보람을 찾는 창의적인 일을 하기 보다는, 노동을 하면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서 스스로를 상실하는 소외의 현상까지도 일어났던 것이다. 즉 타락한 인간은 낙원에서 쫓겨난 이후 생산을 위한 수고와 고통을 감내해야

40) 식산계는 일제 강점기에 농촌의 통제 기구이자, 농민의 수탈기관으로써의 금융조합이었는데 배민수는 이것을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하여 농민들의 자립과 자주 의식을 함양하며 경제 부흥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식산계에 관련한 배민수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 한규희, 『배민수의 식산계 부흥사업 참여 배경과 그 영향』 (서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2004), 44-64.

41) 배민수, 『그 나라와 한국농촌』, 91.

42) 노동문제에 대한 이하의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기초로 재구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정미현, “노동의 재분배에 대한 여성신학적 고찰: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하여,” 『기독교 사회윤리』 42(2018), 241-264.

43) 윤형, “노동의 기원,” 『Canon & Culture』 6-1(2012, 04), 69-95; 김방룡, “노동에 관한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사회윤리』 9(2005), 113-145.

하는 힘든 노동에 내몰리어 살아가게 되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의 망가진 관계성의 회복이었을 뿐 아니라,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다시 회복한 사건이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예수께서도 일하신다.(요 5:17)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과 이웃과의 새로운 관계성을 회복한 그리스도인들은 노동으로부터의 소외가 아니라 예언자 이사야가 제시한 종말론적 비전을 갖고 노동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사 65: 21-22) 또한 노동은 착취와 소외의 도구와 수단이 될 것이 아니라, 수고와 노동을 한 사람이 그 노동의 대가를 즐길 수 있어야 하고 생산물을 이웃과 공의롭게 나누며 감사함과 기쁨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

개신교의 노동윤리는 종교개혁을 통하여 중세기적 교회의 형태로부터 탈피하여 근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에서 새롭게 정립되었다.⁴⁴⁾ 중세기에는 관조와 명상적 신앙생활(*vita contemplativa*)에 비중을 두었다면, 개혁교회는 관조적 삶의 가치가 아니라, 능동적 삶의 가치 (*vita activa*)를 다른 각도에서 더 비중 있게 보아내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개신교의 노동윤리는 노동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는 것을 더 강조하였다. 따라서 명상의 가치보다는 행위와 노동의 비중이 더 강화되었다.⁴⁵⁾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는 역방향으로 한쪽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지속됨으로 인해서 명상과 노동, 쉼과 노동의 균형이 마찬가지로 깨져 버렸다.

그리고 산업혁명과 함께 근대 이후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창조적 행위가 아니라, 재화적 가치로만 환산되고 평가되어서 임금노동으로 축소되어버렸다. 그래서 개신교의 노동윤리 강조 현상은 노동의 존엄을

44) 이하 단락의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참조: 정미현, “노동의 재분배에 대한 여성신학적 고찰: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하여,” 249-253.

45) 월터 브루그만/박규태 옮김, 『안식일은 저항이다』, 40-41.

부각시킬 수 있었으나, 임금노동만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하게 된 것이었다. 더욱이 개신교 노동윤리는 노동을 소명으로 받아들이게는 하였으나 이것이 과도하게 미화됨으로써 불합리한 체제에 저항하지 못하게 하며 그 굴레에 갇힌 채 무의미한 노동마저도 수동적으로 수용하게 했던 것이다. 그리고 불의한 체제에 대해서도 순응하게 만들며, 불복종, 저항과 비판을 부정적인 것으로 격하시켜 버린 것이다. 마침내 인간은 노동하는 과정에서 생산품과 생산력으로만 평가되고, 인간관계도 계층화되어,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는 현상이 가속화된 것이다. 따라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소외현상과 개신교의 노동 윤리는 결국 임금노동 체제 유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변질되어 버렸다.⁴⁶⁾

또한 전 세계적으로 빈부간의 격차가 가속화되면서 노동의 본질적 의미는 더욱 왜곡되었다. 일하지 않고도 자본의 증식으로 더 많은 부를 손쉽게 빠르게 획득하여 향유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씬 없이 일을 하여도 제대로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사이에 격차가 너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처럼 자본의 축적으로 더 많은 부를 창출하고 소유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체제에 의한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노동의 왜곡 현상과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병폐에 대하여 개신교 경제 윤리는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현대사회 신자유주의적 경제 체제 속에서 인간은 원하지 않는 노동 체계 속에 불안정한 상태로 내몰려 있어서 노동의 생산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노동을 통한 생산물의 분배는 편중되어 프레카리아트(precariat)⁴⁷⁾의 삶은 더욱 곤궁해지고 불평등은 더욱 가속화되어 있다. 이러한

46) 도로테 쾰레/박재순 옮김, 『사랑과 노동』 (천안: 한국 신학 연구소, 1992), 111-114.

47)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새롭게 등장한 노동자 계층을 뜻하는 말로써 불안정한 고용, 열악한 노동 상황에 내몰린 과전직, 비정규직, 실업자, 노숙자 등을 일컫는 표현이다. 불안정한(precarius)과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의 합성어이다.

체제에 덧붙여서 4차 산업혁명의 기술개발은 인간의 일자리를 기계가 대체하게 되며 인간은 또 다른 차원에서 노동으로부터 소외현상을 겪게 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기계가 인간의 노동의 많은 부분을 대신 하게 되는 시대에 이러한 상황을 외면하거나 두려움을 갖기 보다는 이에 대하여 적절히 응전할 수 있는 구조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기독교 윤리의 관점에서 노동의 의미와 역할에 대하여 새롭게 고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토지 자본을 포함한 자본 증식에 의한 부의 축적은 더욱 손쉽고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반면에 땀 흘리며 수고하는 노동의 가치는 더욱 평가절하 되고, 기계와 정보 지배력에 의한 새로운 경제 구조의 재편성의 시대에 우리는 창조적 노동과 삶의 의미를 다시금 찾아가야 한다. 즉 기계와의 협업을 통하여 더욱 생산성을 높이고, 인간 본연의 가치를 중시하는 노동의 뜻을 살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기본소득의 도입과 같은 시도들이 창조적 노동을 회복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겠다. 경제적 구조의 재편성의 방안으로 중앙과 지방의 정부 조직을 통하여 일정 금액의 현금을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의 원칙에 따라 지급하자는 것이 기본소득의 근본 취지이며 방법이다.⁴⁸⁾ 경기도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배당, 농민들을 위한 농민기본 소득제등 이미 실험되고 있는 정책들이 보완되고 발전될 수 있겠다. 물론 한꺼번에 단 시일 내에 이러한 제도가 완벽하게 도입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자체가 예를 들어서 대부분 여성 노동으로 분류되는 무임금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도 새롭게 평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노동의 성차별적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의 구조를 더욱 가시화하고, 노동의 가치에 대해 인식하게 하며, 패러다임의 변화를

48) 기본소득에 대한 입문서로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 강남훈, 『기본소득의 경제학』 (서울: 박종철 출판사, 2019).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와 같은 체질과 체제의 변화가 가능하다면, 더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노동을 할 수 있으며, 인간이 그 존엄과 가치를 되찾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은 “노오력의 배신”⁴⁹⁾의 시대이다. 청년들은 소명감을 갖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제도적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실업과 노동 소외 현상 속에서 냉소주의적으로 되어간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소명과 헌신 등의 고전적 개념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기보다는 사회 구조적 모순을 짚어나가며 대안적 가치와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노동의 본질적 의미를 회복하는데 앞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노동에 대한 총체적이고 새로운 고찰이 필요한 이와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삼애교회의 공동체는 흠과와 친교와 교제를 통하여 파종, 돌보기, 수확으로 이어지는 자연의 이치와 노동의 가치를 몸으로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배민수가 농업을 위주로 한 경제구조의 상황에서 노동을 강조한 것과 오늘날의 현실은 분명 다르다. 그러나 삼애 나눔 농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도시 농민으로서 노동에 임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배운다. 이러한 과정에서 삼애교회 공동체는 노동으로부터의 인간의 소외현상을 극복하고 진정한 노동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혜택도 정당하게 받는 경제정의를 향한 신앙적 성찰을 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삼애교회는 노동에서의 성차별적인 역할 규정을 지양한다. 하나님의 창조를 긍정하고 생명을 사랑하여 하나님 찬양에 이르는 신앙공동체를 지향한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연의 품 안에서 “사랑과 노동을 통해 창조의 과정에 참여하는”⁵⁰⁾ 신앙적 훈련과 육체적 노동에 함께 동참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49) 조한혜정, 엄기호 외, 『노오력의 배신』 (서울:창비, 2016).

한국 교회에서 부엌 봉사는 여신도회의 일로 여겨지며 가사 노동의 연장선상에서의 일들은 여성이 담당하고 의사 결정 구조에서 여성이 배제된다. 그러나 삼애교회는 주방봉사로부터 당회에 해당하는 교회위원회의 활동, 말씀 선포에 이르기까지 성차별적 구조에서 벗어나서 공정하게 그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또한 교회 뒤편 고봉산 기슭에 교인들의 수고와 헌신, 노동으로 마련된 기도길은 개신교 영성에서 매우 약화된 명상적 기도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 줄 수 있게 조성되어 있다. 수태고지부터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까지 복음서를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대한 성서 말씀을 묵상하며 움직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14개의 지점이 연결되어 있다.⁵¹⁾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뜻하는 에큐메니즘(ecumenism)의 희랍어 어원은 oikos이다. 집을 뜻하는 이 단어는 생태를 뜻하는 ecology, 경제를 뜻하는 economy와 연결되어 있다. 즉 에큐메니즘을 지향하는 교회란 전 세계 교회 공동체와의 유대감뿐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의 연합을 도모하면서도 경제정의와 생태정의를 포함한 생명 운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교회를 뜻한다. 교회력에 따른 성서정과를 바탕으로 말씀을 새기며, 자연과 계절의 변화를 체득하여 창조의 섭리를 이해하도록 힘쓰며 기증자의 유지에 따라 초교파 연합운동의 일환으로 설립된 삼애교회는 이러한 점에서도 생태 친화적 목회 방침을 세우고 잔반 줄이기,⁵²⁾ 재활용 제대로 하기, 일회용품 자제, 아나바다 운동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생태 친화적 교회운동, 하나님

50) 도로테 쾰레/박재순 옮김, 『사랑과 노동』, 12.

51) 정종훈, “연세대학교 삼애교회의 현황과 비전, 그리고 삼애정신의 구현,” 118.

52) 이러한 생태친화적 목회방침은 주보 뒷면 알리는 말씀 아래 항상 공지하여 교인들이 숙지하도록 하고 있다.

의 생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⁵³⁾ 또한 지역 사회에 이러한 가치를 전하는 신앙공동체로 자리매김 되어 발전할 가능성과 책임을 지닌다.

III. 나가는 말을 대신하여

위에 제시된 삼애교회의 특성과 현재적 의미를 요약하는 대신에 기증자의 노동의 결실로 마련된 삼애 캠퍼스의 자연환경을 활용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몇가지 대안적 방안을 제시하며 이 논문을 마치려고 한다.

첫째로 삼애 캠퍼스의 기존 자연 환경을 최대한 살리면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약초원을 만드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고유한 자국의 식물자원을 보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원의 해외 유출을 막고, 보존한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시켜 수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자생 식물 자원의 가치 보존도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도 시급하지만 그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용 부지였던 이 땅이 식물자원 연구의 장으로도 활용되도록 한다면 삼애정신에 부합하는 적절한 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⁵⁴⁾

53) 배민수의 둘째 아들 배영철은 그의 부모님이 오늘날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는 생태계, 재활용, 지속가능성 등과 같은 관심사를 잘 이해했고 실천했던 선각자들임을 증언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을 삼애교회 공동체가 계승하는 것이다. 『연세대학교 삼애교회 10년사, 2006-2016』 (서울: 연세대학교 삼애교회, 2016), 171.

54) 서울대학교에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약초를 지키며 자생 식물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국내 자원식물의 개체 확인, 표본 식물 보존, 표본 제작과 보관, 종자의 보존, 재배법 연구 및 생리활성 검색에 사용될 수 있는 추출물의 확보와 보관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1995년 경기도 고양시 설문동에 만평에 가까운 부지에 약초원을 확보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약초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

두번째로 도시농부 프로젝트의 운영이다. UN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의 17개 항목 중 열한 번째 목표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이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도시에는 인구 과밀현상이 진행되지만 농촌은 공동화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도시 안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하여 주변화된 사람들은 더욱 주변화 될 수 밖에 없는 경제, 사회 구조가 생겨났다. 이러한 때에 좁은 면적 안에서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사는 한국의 도시 현실에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특별히 녹지 면적이 부족한 서울의 현실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은 미래 지향적으로 볼 때 필수 불가결하다. 오히려 인구 수 감소로 전국적으로 이미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며 향후 아파트는 더욱 더 남아돌게 될 것이지만, 자연녹지와 공간에 대한 필요성은 더 증대할 것이다.

최근 들어 도시 농부 프로젝트와 같이 도시 안에서 살면서도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실천하는 방안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취미 차원의 소일거리가 아니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생태 살림운동의 일환이라고 보겠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도시 농업법)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⁵⁵⁾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삼애 캠퍼스 부지의 일부는

였다. <http://snuherb.snu.ac.kr/ko/node/2>(2019.9.16, 접속). 연세대학교는 2011년 약학대학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천연의 부지가 교육용으로 사용된다면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서울대학교 약초원을 단순히 모방하거나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화된 공간으로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다.

55) “모두가 도시농부 서비스”는 주거지가 어디이건 간에 농업과 시민을 연결하여 주는 프로젝트이다. 국민 모두가 농업, 애완식물과 땅의 가치에 관심을 갖게 하고 “농촌”이라는 공간적인 개념을 벗어나 도시민도 모두 농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지향하는 전국 단

도시 농부를 위한 텃밭 제공과 아울러 이러한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고, ICT와 농업을 접목한 스마트 농법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인큐베이터가 되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도시농부 프로젝트는 연령을 막론하고 이곳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자연 안에서 배우게 하는 학습 효과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미세먼지 감소 등 도시 안의 자연환경 개선에 보탬이 되는 선한 작용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이미 자리 잡은 삼애 나눔 농장 공동체를 활성화해서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는 모델이며, 수확물을 주변의 지역 주민들과 나눔으로써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도 있겠다.

셋째로 약초원 프로젝트나 도시 농부 프로젝트는 배민수와 삼애정신 기념사업과 캠퍼스 유지에 필요한 재정확충용 수익사업이 되기는 힘들 것이므로 이러한 자연환경의 가치를 최대한 살리는 수익성 사업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따라서 기증자의 삼애정신을 담아내면서도 삼애 캠퍼스를 효율적으로 유지 보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다양한 아이디어의 수집이 필요하며 후속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더욱 모색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 생태 친화적 연수원 시설과 같은 것이 그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시설은 다목적 용도로 구성될 수 있겠으나 일차적으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고 기존의 천문대와 연계하여 우주적 지평을 넓히고 그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비전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의 의미를 새길 수 있는 교육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⁵⁶⁾ 그 뿐 아니라 이곳은 자연을 품

위의 도시농업 포털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는 텃밭 가꾸기, 베란다 활용, 옥상 정원 활용등 다양한 농업 기법을 전수하고 도와준다. [https://www.modunong.or.kr:449/contents/garden/garden List.do?menuNo=17](https://www.modunong.or.kr:449/contents/garden/garden%20List.do?menuNo=17) (2019.9.16. 접속).

56) 교육, 연구개발, 네트워크의 세가지 기능을 유기체적으로 감당하는 교육기관으로써 유엔 지속가능 발전 통영센터가 국내에서 참고할 만한 대표적 모델이다. <http://ecopark.rce.or.kr> (2019. 9.25 접속)

은 영성 훈련의 장소, 직업 탐색과 재교육, 여러 단체의 연수, 회의를 위한 공유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웨이커 교도들의 영성 센터 혹은 독일어권 유럽에 보편적인 집회의 장소나 크리스찬 아카데미 등 여러 모델들이 적절하게 참고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우리가 사는 지구의 주인이 아니라, 빌려쓰는 지구 위에 초대된 하나의 손님일 뿐이기 때문에 미래에 이 땅에 살아가게 될 사람들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한다.⁵⁷⁾ 배민수의 사회혁신을 위한 농촌운동은 곧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였고, 자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었으며, 생명 살림 운동이었던 바 그 핵심적 가치는 오늘 날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군사주의적 갈등과 긴장 속에 살면서 여전히 적대적 이분법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가 한반도에서 넘어서야 할 장벽이 많다. 특별히 한국 개신교는 반공주의와 용공주의라는 이념 논쟁에 갇히어 흑백논리와 이분법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회가 평화와 화해를 위한 촉매제이며, 교육의 장소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분열의 원인을 제공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북한으로 가는 지정학적 길목의 삼애 캠퍼스에 에큐메니칼 공동체로써 자리 잡은 삼애교회 안에서도 아직까지 한국 사회의 보편적 경향처럼 세대 간 이분법적 이념 논쟁의 틀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반공과 용공의 이념 프레임을 뛰어 넘는 화해와 평화를 위한 실천적 자리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삼애교회 공동체의 가장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⁵⁸⁾

57) 크리스토프 쉬트켈베르거/정미현 옮김, 『환경과 개발. 사회윤리학적 접근』 (서울: 한국 신학연구소, 2006), 213-223.

58) 배민수는 미국 프린스턴 체류 당시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의 대가인 체코의 요셉 흐로마

삼애교회는 지정학적 비극이 지정학적 축복으로 이어져야 할 이 시대에 평화와 화해를 위한 역사적 장소로 지속성 있게 발전되어야 할 사명을 지닌다. 배민수는 냉전체제 속에서 반공주의 기독교를 대표했었던 한계를 지녔지만, 그것을 우리가 답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삼애교회는 21세기에 남과 북의 상생 협력을 향한 화해와 평화의 훈련을 위한 자리이며, 우리 사회는 물론 지구 남반구 사람들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개발을 돕는 역할을 더욱 능동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기증자의 땀과 노력, 눈물과 기도가 서려있는 그 땅은 단순히 역사성을 보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고, 평화와 화해를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교육과 신앙의 훈련터로 자리매김 될 수 있어야 한다.

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공유재산, 공유공간으로서의 가치가 온전히 드러나고, 역사적 의미를 담은 장소성이 기억되며, 기도와 노동(*ora et labora*)의 영성도 온전히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⁵⁹⁾ 그것은 외형적으로 건물과 공간을 화려하게 세우고 꾸미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성 있는 삼애정신의 회복과 지속성 있게 그 가치를 실천하는 방안을 효율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드카 교수에게서 배웠고 이러한 신학사상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견지하였다. Pai, Minsoo, 『배민수 자서전. 누가 그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287-289; 정미현, “배민수와 호로마드카,” 국민일보, 2019년 6월 11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2693> (2019. 9.15 접속)

59) 연세대학교에서는 2019년 7월 23일 기획처장의 이름으로 교내 이메일을 통하여 삼애 캠퍼스 개발 계획에 대한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2019년 9월 16일 현재, 기증자의 유가족 전체는 공개 이메일 편지들을 통하여 연세대학교가 제시한 삼애 캠퍼스 개발계획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http://chunchu.yonsei.ac.kr/news/articleView.html?dxno=25650> (2019.9.16. 접속); <https://www.youtube.com/watch?v=Piv71pNov2U> (2019.9.16. 접속). 삼애교회는 삼애 캠퍼스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논리와 길항작용 안에서 희생될 수 있는 공동체는 아닐 것이다.

참고문헌

- 강남훈. 『기본소득의 경제학』. 서울: 박종철 출판사, 2019.
- 김방룡. “노동에 관한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사회윤리』 9(2005), 113-145.
- 김부식. 『삼국사기』, 신호열 역해. 서울: 동서문화사, 2007.
- 김용만. 『인물로 보는 고구려사』. 서울: 창해, 2001.
- 김준호. 『미래산업, 이제 농업이다. 후지쓰는 왜 반도체를 버리고 상추를 심었을까』. 서울: 가인지 캠퍼스, 2017.
- 라우센, 에밀, 이세아. 『상상 속의 덴마크』. 서울: 틈새 책방, 2018.
- 방기중. 『배민수의 농촌운동과 기독교 사상』.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9.
- 배민수/박노원 옮김. 『배민수 자서전. 누가 그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9.
- 배민수. 『그 나라와 한국농촌』. 삼애기념사업위원회편.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7.
- _____. “한국 기독교 농촌운동의 의의.” 『그 나라와 한국 농촌』.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7.
- 배영. “농촌과 생명문화, 아버지의 초상.” 배민수/박노원 옮김. 『배민수 자서전. 누가 그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9.
- 브루그만, 윌터/박규태 옮김. 『안식일은 저항이다』. 서울: 복 있는 사람, 2015.
- 서정민. “배민수의 ‘그 나라’와 신학적 사회운동.” 『신학논단』, 43(2006), 533-549.
- 스튀켈베르거, 크리스토프/정미현 옮김. 『환경과 개발. 사회윤리학적 접근』.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6.
- 언더우드, 호레스 그랜트, 언더우드,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 보고서 1915년.” 『언더우드 자료집 V권』 이만열, 옥성득 편역.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0.
- 연세대학교 농업개발원. 『연세대학교 농업개발원 25년사』. 서울: 연세대학교 농업개발원, 1991.
- 『연세대학교 삼애교회 10년사. 2006-2016』. 서울: 연세대학교 삼애교회, 2016.
- 윤형. “노동의 기원.” 『Canon & Culture』 6-1(2012.04), 69-95.
- 쉴레, 도로테/박재순 옮김. 『사랑과 노동』. 천안: 한국 신학 연구소, 1992.
- 정미현. “노동의 재분배에 대한 여성신학적 고찰: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하여.” 『기독교

교 사회윤리」 42(2018), 241-264.

정석환. “최순옥 여사의 생애와 사상.” 「한국 기독교 상담학회지」 22(2011), 295-341.

정종훈. “연세대학교 삼애교회의 현황과 비전, 그리고 삼애정신의 구현.” 「신학논단」 66(2011), 109-24.

최병성. 『들꽃에게 귀 기울이는 시간. 자연이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 서울: 새물결 플러스, 2013.

최순옥. 1976년 9월 20일, Mildred and Arthur C. Prichard 에게 보낸 서신. 연세대학교 박물관 자료실(미간행).

최재건. “배민수 목사의 미국에서의 활동.” 「신학논단」 51(2008), 111-38.

———. “배민수의 삶과 사상, 그의 유지 계승.” 「대학과 선교」 39(2019), 155-90.

한규희. 『배민수의 식산계 부흥사업 참여 배경과 그 영향』. 서울 :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2004.

<https://rules.yonsei.ac.kr> (2019.7.17. 접속)

<http://www.seongdo.org> (2019.7.17. 접속)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2693> (2019.7.19. 접속)

<https://rules.yonsei.ac.kr> (2019.7.19. 접속)

<http://chunchu.yonsei.ac.kr/news/articleView.html?idxno=25650> (2019.9.16. 접속)

<https://www.youtube.com/watch?v=Piv71pNov2U> (2019.9.16. 접속)

<https://www.modunong.or.kr:449/contents/garden/gardenList.do?menuNo=17> (2019.9.16. 접속)

<http://snuherb.snu.ac.kr/ko/node/2> (2019.9.16. 접속)

<http://ecopark.rce.or.kr> (2019. 9.25 접속)

【 ABSTRACT 】

The Value of Samae Campus and the Samae Church of Yonsei University

Mee-Hyun Chung (Professor,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consider the meaning of threefold love as professed by the Samae Campus and the Samae Church. Samae is a love of God, love of labor and love of the rural village. The meaning of love in these three layers must be reinterpreted in the context of today's situation. This article elaborates on how the Samae Church maintains these three meanings.

First, the Samae Church is seeking for God's Love. The lay leadership of the members through the church council has the possibility to be influential. In this way, members can realize democratic and cooperative values in order to practice God's love in society in daily life.

Secondly, the meaning of love of rural village should be reinterpreted and adapted to seeking the life centered spirit and ongoing care of marginalized people. The Samae Church has a mission to convey the good news of God from this precious area to the society and the world.

Third, the meaning of love of labor has a value that can be expanded and reproduced in various dimensions. The community of Samae Church carries out the value of physical labor through the Samae Sharing Farm as well as various activities including the eco-friendly Church movement and services that can shape the meaning of sharing to the people of the Global South and to the marginalized people in the region.

In conclusion, the Samae Church can be established as a representative model for the ecumenical unity of the church. This spirit should be maintained for sustainability. It should be preserved as a place for training peace and reconciliation through the resurrected Jesus Christ with God, people and nature.

Key Words: Samae Church, Samae Campus, sustainability, nature, labour, rest, love
doi: 10.22737/U&M.2020.43.199

논문접수일: 2020. 02. 11.	논문심사일: 2020. 02. 17.	게재확정일: 2020. 02. 26.
----------------------	----------------------	----------------------